

2005年 新年사



KISTI 직원 여러분!

새날, 첫 새벽을 여는 힘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2005년 을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ISTI는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04년은 KISTI가 보다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대 국민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 한 해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원 최초로 'yesKISTI' 라는 자체 통합서비스 브랜드를 선포해 연구자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고급 지식정보의 확대를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대장정의 첫 삽을 뜬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더불어 세계적 연구성과 도출의 기저가 되는 슈퍼컴퓨팅 파워의 적극적인 활용과 새로운 R&D 환경인 e-Science 기반 구축, '글로벌리어드 프로젝트'의 본격 참여 등을 통해 차세대 첨단 연구환경 구축에 힘썼으며, R&D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 정보의 광범위한 확보와 서비스, 고품격 심층·전략 정보 분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연구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남·북 합작 프로젝트인 디지털총서 '백두산의 자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과학기술 백과사전, 과학기술 용어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남북 과학기술정보교류에 중요한 획을 그었으며, 국내·외 백여 개의 연구기관, 지식정보 유통기관, 학술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기관으로써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성과들을 KISTI는 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과학기술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04년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해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러한 '혁신의 물결'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KISTI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국가 e-Science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과 첨단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정착될 경우, R&D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 절감은 물론 성과의 극대화 등 우리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GLORIAD)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중·미·러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잇는 정보 고속도로 글로벌리어드망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핵융합, 고에너지물리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 협업연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동시에 대덕연구단지 지역 특화망(SuperSIReN)의 확대 구축으로 국내 연구자들 사이의 원격 협업도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가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참여하여, R&D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첨단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과학기술 DB와 검색시스템을 표준화 해 각 정보들의 상호연계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R&D의 전(全)주기 관리를 강화시키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가 과학기술 정보 보안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42개 주요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24시간 보안과 주기적인 점검,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KISTI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KISTI의 올 한 해 계획들은, 과학기술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을 급성장 시킬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계획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땅속 깊숙한 곳의 영양까지 빨아들여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KISTI가 단단한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국가 과학기술이 안정적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KISTI 직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국가 과학기술을 지명하는 든든한 대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과학기술의 흐름을 끊임없이 숙지하고 전문성을 기르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과 '한 발 앞서가려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목표한 2005년의 계획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KISTI를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열린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업무조정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직원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순리 경영'을 하겠습니다. 연구서열보다는 실력이 더 인정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순리에 따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충분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다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극 찾아갈 생각입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자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로 도출된 결과를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쌍방향 교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KISTI 사업 전반에 수요자 중심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역시 KISTI다', 'KISTI가 하면 다르다'라는 인식을 수요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STI 직원 여러분!

KISTI는 이미 명실 공히 국가의 중추적 지식정보인프라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과학기술정보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KISTI인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만물 중에 으뜸으로 일어나 세상을 깨우는 닭처럼 부지런하게 국가 과학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KISTI인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2005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曹永華